

# 전주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논한다

### ‘2024 in 전주, 푸드테크 솔루션과 미래전략 세미나’ 15일 개최

전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시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은 오는 15일 전주혁신창업허브(덕진구 유상로 67) 1층 첨단누리홀에서 ‘2024 in 전주, 푸드테크 솔루션과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품 소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식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관련 식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트렌드 변화의 중심에 AI와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식품이 결합 되는 푸드테크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푸드테크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미래 식품산업 성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테크 정책·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트렌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가는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먼저 1부 세미나에는 박성용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사무관과 장환희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터진출원 팀장, 이승욱 교수(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가 각각 △2025 푸드테크 정책 추진방향 △빅데이터기반 커스터마이징 푸드 트렌드 △건강기능성소재 기반 맞춤형 식품 개발 현황 △맞춤형 식품의

임상실증 연구 개발현황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김상남(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과 김명선 한국식품연구원 본부장, 김성수 (주)에프아이소프트 대표, 양선홍 (주)팜피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미래 푸드테크 산업의 솔루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주가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푸드테크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기관 간 소통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 향후 정책 수립과 미래 식품산업 발전에



2024 in 전주, 푸드테크 솔루션과 미래전략 세미나 포스터

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비나텍(주)과 비나미래나눔재단은 지난 9일 전주시복지재단에 김장 김치 150박스와 백미 150포 등 3000kg(13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 나눔

### 비나텍·비나미래나눔재단, 김장 김치·쌀 3000kg 기부

비나텍(주)대표(성도경)과 비나미래나눔재단(이사장 주영진)은 지난 9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김장 김치 150박스와 백미 150포 등 3000kg(13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전주시 팔복동에 본사를 둔 비나텍(주)은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자’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매일 급여 실수령액의 1%를 기부하고 있으며, 1년 24시간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코스타상장기업이다.

비나텍(주)은 전주로 공장을 이전한 2011년부터 올해로 14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해 10월 설립된 비나미래나눔재단(비나텍(주) 산하 재단

법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랑 나눔 행사를 위해 비나텍 완주 신공장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임직원들과 가족, 지역주민 등 180여 명이 함께 모여 엄청난 양의 김장을 버무리고 정성껏 포장했다.

주영진 비나미래나눔재단 이사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물가 인상으로 겨울나기가 걱정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오늘 담긴 김장 김치와 쌀이 관심과 사랑으로 전해질 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봉사를 실천해 주신 비나텍(주) 모든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 전주시 주민감사청구 결과 발표 대한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오늘 개최

전북환경운동연합·(사)전북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는 11일, 2023년과 24년 홍수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해 온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대규모 모래톱 준설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하천 정비사업이고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갈등만 부추긴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전주천·삼천 재해 예방 하도 정비사업 관련, 전주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위원회의 하천법 관련 정점에 대한 판단, 징계 수위에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하천법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하천관리청인 전북자치도의 하위 독립 기관이라는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벌목과 준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주목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감사를 청구한 시민과 단체(대표청구인 이정현)들이, 전주시가 기관 경계와 주의, 개선조치 통보를 받은 만큼 우범기 시장이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치 통보사항인 ‘하도중장점비계획’과 ‘생태하천계획수립’ 등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0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다고 고지했다. /김옥기 기자

### 송천1동 마을가꾸기, 주민 휴식·치유 위한 정원 조성

도시 속 버려진 공간이 이제는 푸른 정원으로 변신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은 주민을 위한 휴식 및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해 자생단체인 마을가꾸기 회원들과 사단법인 더 숲, 초록정원사, 정원작가, 마을주민 등과 함께 송천 현대 4차 아파트 인근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했다.

이번 활동은 송천1동 내 버려진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으며, 정원 만들기 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꽃과 나무, 풀을 심고, 다양한 식물들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번 공원 조성 활동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동체 의식을 강화



송영길 송천1동 마을가꾸기 회장은 “쓰레기와 잡초로 무성했던 공터가 깔끔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어 뿌듯하다”라며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이정란 완주의용소방대원, 등산로서 심정지 환자 살려

완주군 대둔산으로 등산을 온 의용소방대원이 우연히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뒤 빠른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완주군 대둔산의 등산로에서 등산객들의 응급거림과 함께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 있으십니까”라는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마침 남편과 딸과 함께 등산 중이던 이정란(53·여) 완주의용소방대 봉동 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은 이 외침을 듣자마자 응급상황임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달려갔다. /뉴시스

이정란 부대장이 현장으로 달려가자 등산로 한 칸에는 A(58)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고, A씨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을 목격한 이 부대장은 A씨의 불규칙한 호흡을 보자마자 ‘심정지 호흡’임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았다.

갑수록 A씨의 상태가 악화되던 때 다른 등산객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들고 와 이 부대장에게 건넸다. AED를 건넨받은 이 부대장은 바로 심장 충격을 3차례 진행했고, A씨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다행히 몸 상태를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전주시의회는 11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추진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 전주시의회,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와 현안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1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은아)와 간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추진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주시의회와 협력해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